

제10차 아시아 농촌의학회의 참관기

김명호

한국농촌의학회 고문, 연세의대 명예교수

회 고

국제농촌의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Rural Health)의 아시아지부(Asian Chapter)로서의 아시아농촌의학회는 제1차 총회와 학술대회를 1973.10.24~27에 일본 우스다에서 개최되었다(대회장: Toshikazu Wakatsuki). 이때 14개국으로부터 334명이 참석했다. 제2차는 1975.4.21~24까지 Iran(Tehran)에서 있었다(대회장: M. Rahnema, 참석자, 국가 기록 없음).

제3차 회의를 1985.5.22~25에 우리 한국(서울)에서 약 200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치루어졌다. 대회장 조운해박사의 경제적 지원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나 기관이 협조했다. 감사한 일이었다. 제4차는 중국 北京에서 1988.10.6~9까지 7개국으로부터 315명이 참석했다. 우리 한국은 김명호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참석했다(대회장은 Guyingqi 박사).

그 후 제5차는 1990.11.25~28 태국 방콕에서 16개국으로부터 300명이 모였다(대회장: Mukda Trishnanda). 제6차는 1996.1.22~24 인도, 로니에서 400명(6개국)이 모여 아주 성대한 회의를 가졌다(대회장: R. Arole). 이때는 김진순교수와 내가 참석했다. 제7차 회의는 일본, 북해도(아사히가와) 1996.5.22~24 16개국으로부터 260명이 참석했다(대회장: Iwao Sugimura). 우리나라로부터는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예산이 풍족하게 보였다. 참석자들의 숙비의 일부까지 부담했다.

제8차는 중국, Guangzhou(光州)에서 1999. 11.11~14에서 16개국으로부터 300명이 모였다(대회장: 張自寬). 이때도 우리나라 20명이 참석했다. 이때 차기회의를 한국에서 맡게 되었다. 제9차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10개국 250명이 모여서 성대한 학회를 가졌다. 대회장 강복수박사를 비롯 회원 전체는 물론 경상북도나 경주시(정부)로부터 또 여러기관 단체로부터 협조를 많이 받았다. 한국을 과시한 회의였다.

제10차 회의

회의장소 : Kinugawa, Tochiki(鬼怒川). Hotel New Okabe
회의기간 : 2005.11.23~26, 참석인원 250명(14개국)

본 회의에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어 한국농촌의학회장 최진수교수를 비롯한 학회 임직원이 많은 수고를 해서 아시아농촌의학회 전부회장인 강복수이사, 최진수이사, 명예이사 김명호교수를 비롯하여 연세대, 영남의대, 경상의대, 전남의대, 조선의대, 유한대학, 호남대학, 초당대학,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의 교수들과 전남의대 대학원 학생들, 농촌진흥원 직원 등이 약 30명 참석했다.

국제농촌의학회나 각 지부학회가 어느 나라에서 학회를 개최하든지 그 나라의 수도보다는 농촌의학과 관계가 있는 곳에서 개최되는 경향에 따라 이번 일본에서도 도쿄(東京)로부터

터 약 180Km 북쪽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낫고(日光) 가까이에 있는 야산과 단풍이 아름답게 주변에 단장된(우리나라 오대산 주변 단풍보다 규모가 큰) 온천촌 기누가와(鬼怒川)에서 대회가 열렸다. 도쿄(아사구사:淺草)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2시간 달려 갔지만 우리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국제농촌의학회, 아시아농촌의학 각 이사회가 끝나고(참석 이사의 대다수가 도착지연으로 연기) 이번 회의 공동주최 기관인 세계가정의학학회(WONCA)의 연찬회의도 끝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환영만찬회가 한창이었다.

11. 24 (제1일)

제10차 회의의 주제는 아세아농촌의학의 전문화와 연합화(Specialization and Unification in Asian Rural Medicine)이다.

◆ 개회식

오전 9시 - 외부손님은 없이 회원들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어 초청사, 축사로 끝났다.

(1) 초청사 - Dr. Isao Kawamura(川村功博士)(대회장, 아시아농촌의학회 부회장)

늦가을 아름다운 온천과 단풍의 마을 Kinugawa로 제회원들을 초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년전 제9차 회의에서 차기회의 개최를 위임 후 일본농촌의학회에서는 회의의 준비를 하여 오늘 제10차 대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고 싶다. 금번 회의는 주제에 따라서 “건강과 문명(Health and Civilization)”이란 제목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장인 Dr. Shigeru Omi의 발제강연과 아시아 회장인 Dr. Zikuan Zhang(중국농촌의학회장)과 일본농촌의학회 부회장인 Dr. Yosuke Yamane의 훌륭한 학자들의 특강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계가정의학회와 공동주관하는 “세계농촌 1차보건진료(Rural Primary Health Care Around the World)” 즉 지역보건에 초점

을 둔 연구과제에 대한 패널토의가 있을 것이다. 원천대 모든 참석자들(회원)이 세계에 있어서의 아시아농촌의학에 관한 재인식을 새롭게 할 줄 믿는다.

또 많은 논문 또 포스타의 발표와 전시를 신청한 중에서 소정위원회에서 120편을 선정했고 이에 따른 토론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기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한 농업기술 만전을 위한 도치기현 농업시험장, 자치의과대학(전국) 각지의 벽촌, 도서 등의 지역의료의 종합의 큰 교육하는 등의 현지답사(Field study)를 하게 될 것이다. 3-4일간 일본에서도 유명한 온천마을 이곳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시고 즐기시기를 희망한다.

(2) 축사 - Dr. Shigeru Omi(WHO 西太平洋 지역 소장)

아시아의 여러나라 특히 개도국에서는 농촌 지역으로부터 인력이나 자원이 신속하게 도시로 이동되고 있다. 경제, 무역, 산업 및 통신 등의 세계화는 소비성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의 증대를 가지고 왔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농업사업 추진에 영향을 가지고 왔다. 아시아의 물적,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농촌보건 문제는 복잡성을 더 해왔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변화를 광범위한 건강결정 요소와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에 농촌의학의 요구도는 증대하였다. 금번 아시아농촌의학 학술대회가 결정한 “농촌의학의 전문화와 연합화”라는 주제는 아시아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 즉 악질적인 조류독감을 비롯한 비전염성질환이나 정신보건문제 등 날로 심해가는데 관심을 갖자는 것으로 안다. 또 본 회의는 농촌의학을 전공하는 연구, 사업의 계획, 추진 등에 종사하는 관련된 분들이 서로 힘을 합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수고한 일본농촌의학회와 계속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제농촌의학회원 여러분이 서로 의견과 지식을 교환하

여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란다.

(3) 축사 - Dr. Ashok Patil(국제농촌의학회장)

아시아 농촌 의학회는 Dr. Toshikatsu Wakatsuki(若月俊一)를 비롯한 Dr. Tonouchi, Matsushima, Hayashi 등 여러분이 개척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Dr. Kawamura 대회장을 비롯한 일본농촌의학회의 총체적인 헌신적 봉사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깊은 심의를 표한다. 농촌보건(의학)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새로운 지견과 경험을 교환하여 2015까지 아시아에서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공에 관한 깊은 관심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끝내지 못한 건강문제와 새로운 “전문화와 연합화”를 요구하는 복합성을 지닌 도전을 받게 되는 21세기에 들어섰다. 여러나라에서 제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의 목적은 동양하다. 이와 같은 우리는 친교를 상호 갖추고 조직망을 갖추어 정보교환과 전파, 효과적인 자원의 이용으로 협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함께 배워 나가야 한다. 아시아농촌의학회와 각국 농촌의학회 농업과학도, 보건정책계획가, 행정가 등이 열성적인 반응과 요청에 대해서 대회의 조직위원회와 더불어 감사한다. 또 많은 논문발표와 포스타 전시를 지원한 분들께도 감사한

회의의제 : Specialization & Unification in Asian Rural Medicine

11/24 (木)	<p>◆ 주제강연 : Health and Civilization by Dr. Shigeru Omi, WHO, WPRO, Representative</p> <p>일정 Major diseases ← by the occurrence of civilizations. The civilization → endemic diseases → diseases ruined of civilization.</p> <p>世界化, 都市化, consumerism(소비성화), 科學發展(기술) 等이 문명화로 영향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명이 인류의 건강에 전염병의 유행, 재발, 비전염병, 정신병과 장애 안전과 의료의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즉 건강관계요인은 문명에 영향을 주어 문명은 계속되고 또 수행되지 않는다. health의 negative impact → positive aspects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과 다른 생물과의 공존의 길을 재구성해 보자 • cross-boundary의 강화 • 지역사회의 재생산 • 소비자를 포함한 각 개인에게 힘을 주자 • 사회책임의 협조를 증진시키자 • 취약 人口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자 • 발전의 주류에 심리사회적 요소로 하자 <p>* 도시설명 좋은 강의였다. Dr. Nakajima(전 WHO 대표)보다는 낫고 한상태박사(전 WPRO 대표)보다는 약한 느낌</p> <p>◆ 특강 1</p> <p>과거 50년간의 中國에 있어서의 농촌에 있어서의 의료봉사(張自寬) : 13억명의 人口, 총 人口의 70%가 농업人口(9억명) : 이 방대한 人口에 대해서 의료봉사는 미흡하기에 문제로 알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nique mode of outstanding achievement 2. Serious setback, deep lesson 3. National supreme authorities make decision at critical moment
--------------	---

11/24 (木)	<p>4. Regard pursuing the new-type cooperative medical service as the opportunity, raise the new climax of strengthening the rural health is an all round way.</p> <p>5. The new-type cooperative medical service will cover the national countrywide by the year, 2008.</p> <p>◆ 특강 2</p> <p>Health Promoting Rural Communities in Japan a Path to the Future, Dr. Yosuke Yamamo</p> <p>日本 농촌의학의 perspective(전망)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의 감소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 농촌(농민) 건강에 있어 primary health care 공급의 원활에 지장을 가지고 왔다. 농촌 특히 보건봉사의 재적응에 있어서의 근대의 심한 문제로서 병원중심의 의료나 응급진료의 erosion이란 문제를 가지고 왔다. JAARM은 농촌지역의 건강증진을 약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개 항의 전략을 세웠다. 건강한 정책수립, 지원환경의 전개,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p> <p>이러한 전략은 보건봉사의 통합(의료, 사회복지, 보건교육, 건강한 생활양식과 삶의 질의 향상 등에 성공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주민, 행정부서, 학자, 보건정책 수립자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역사회의 요구, 끊임없는 농촌과 도시의 환경과 ecosystem에 알맞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p> <p>日本에서는 그간 보다 낳은 교육, 훈련, 확보(농촌지역에서 봉사할 의사)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계속하여 농민들도 손쉽게 고급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 <p>日本의 농촌지역의 건강증진에 있어서의 도전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life-stage health & welfare service monitoring system especially for the aged and childrenCultural interchange & ecological balance between rural/urban communitiesIntroduction of IT system to the community health promotionDevelopment of reproductive health a rights in rural communities,Community protection and safety promotion against natural disaster, infarction pandemics, etc.Mature autonomy and self-government of rural communities.Adequate stable and safe foods supply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p>◆ 특강 3</p> <p>The State of the Art of Gastric Cancer Treatment in Japan</p> <p>오전에 개회식, 이상의 3개 특강, 주제강연을 마치고 오찬 세미나가 있은 후 오후에는 회장의 특별강연(Obesity in Rural Medicine)이 있었다. 이 강의는 준비가 잘되고 전반적인 보건문제와 obesity control을 종합했다.</p> <p><이사회 개최></p> <p>오후는 각국 대표들의 구연이 있었다. 첫 번째 Dr. Tandan(Bharatpur 보건대학 부학</p>
--------------	--

	<p>장)이 하게 되었다. "Risk factors for Acquiring Japanese Encephalitis in Rural Parts of Terai in Nepal" 그 연자가 不參으로 내가 代讀했다. Oral presentation은 다음과 같다.</p> <p>Areas : New and recurring infections, Food and disease, Rural areas & life-style induced diseases, Rural areas & preventive activities</p> <p>From : 7 countries(한국 1, 일본 10, 중국 1, 인도 1, 네팔 1, 필리핀 2, 독일 2) 18 papers</p>
	<p>◆ 약 250명의 참석회원, 40-50명 내빈과 합하여 성대하고 음식과 주류가 풍성한 party에 여흥, 縣知事의 환영사 등</p>
11/25 (金)	<p>오전 중 : 세계 전반에 걸친 농촌의학(Rural Primary Health Care) 연사들 : Neethia Naitoo(SA), Bruce Charter(호주), Joha-Wynn-Jones(UK), A. Patil(India), James Rourke(Canada), 홍대용, Claudio Colosio(이태리), 松島松翠(日), Roger Strassar(Canada), Simak Agnes(Hungaria)</p> <p>오찬 강의 : Role of adipocyte in the development of obesity-related complication</p> <p>오후 口演 : Prospects of Asian Rural Medicine(RM), Pesticide poisoning & Farm machinery, Rural health, clinical medicine에 대한 5 countries로부터 21 papers(한-2, 日-15, 中-2, 印-1, Yugo-1)</p>
11/26 (土)	<p>◆ Poster display : 7 분야의 poster와 의료기재의 광고전시 등 ◆ Dinner 日本식 개별 밥상으로 큰 party, 여흥으로 日本 춤, Russia dancing 소개 Field Study: 1. Uzunomia 농업시험장 방문 2. 自治 醫科大學 3. Romantic Village 4. Oya Stone Mining Scte/Oya Stone Museum</p> <p>◆ 폐회</p>
	<p>◆ 農村保健과 학회를 위한 공로지대함으로 상장과 상품 수여 To Dr. Myung Ho Kim, Hon. Bd. Memba of IAAGRH <村評> 長點 : Program이나 강사안내 등 잘 짜져 있다. 재정이 충분하여(sponcer가 많다) party, 식사 등 풍부했다. 학회장이나 WHO 대표의 특강이 좋았다. 유공자 시상 : 짧은 시간 가결 시행했다. 短點 : 회의 공용어는 영어인데 中國人 특히 張회장이나 몇 연사가 통역을 日-英 3중으로 통역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로는 English only를 주장.</p>